

새누리 대선후보 경선 첫 TV토론회

# 非朴 4명 '박근혜 때리기' 협공

24일 처음으로 열린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 TV 토론회에서는 비박 주자 4명이 박근혜 전 비상대책위원장에 대해 협공을 펼쳤다. 방송 3사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비박 주자 4명은 박 전 위원장에게 소나기 질문을 퍼부었다.

우선 임태희 전 실장은 박 전 위원장을 향해 “단단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며 5·16 평가에 대한 국민의 반응을 빚대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올바른 역사인식이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초”라며 “대통령이 되면 5·16을 쿠데타로 규정된 역사교과서를 개정할 의향이 있느냐”고 물었다.

박 전 위원장은 “최근 여론조사 결과 제 발언에 찬성하는 분이 50%를 넘었다”며 “역사인식을 달리하면 통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는 50% 넘는 잘못된 국민이니까 버리라는 얘기가 되고 그 역시 통합이 안 된다”고 반박했다.

김문수 경기지사는 저축은행 고문 변호사를 맡았던 박 전 위원장의 동생 지만씨의 부인 서향희씨를 겨냥, “저축은행사태에 상당히 연루됐고 얼마 전엔 홍콩으로 출국했다”며 “만사올통, ‘만사가 올케면 다 통한다’는 말이 있다”고 공격했다.

당황한 박 위원장은 “(올케가) 주목을 많이 받다 보니 외국에 연수 간 것까지 다 도피성이라고 (언론에) 나



새누리당 대선 경선후보들이 24일 KBS본관 하모니광장에서 열린 방송3사토론회에서 기념촬영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태호 안상수 박근혜 김문수 임태희 후보. /연합뉴스

**임태희 “올바른 역사인식 가장 중요”**  
**김문수 “만사가 올케면 다 통하느냐”**  
**김태호 “민주절차 무시 사당화 문제”**

서 미안한 생각도 든다”며 “잘못이 많은 것처럼 말하는데, 법적으로 문제가 됐으면 검찰에서 가만 있을 리 없지 않느냐”라고 불쾌감을 드러냈다.

김 지사는 또 박 전 위원장의 국정 운영 기조와 관련, “출마선언에서 국정운영 기조를 국가에서 국민 위주로 바꾸겠다고 하는데, 이는 국가와 국

민을 대립시키는 것으로 인기영합주의라고 본다”고 지적했다.

박 전 위원장은 “(김 지사가) 대립을 좋아하는 듯 하다. 국민과 국가를 따로 가는 게 아니라 국민 역할을 발휘할 때 힘이 모아져 국가발전으로 이어지고 선순환이 된다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김태호 의원은 정두언 의원 체포동

의안 부결과 관련해 사당화 논란을 언급했다. 김 의원은 “많은 과정에서 민주적 절차가 무시되면서 사당화, 나는 아니라고 보지만 국민적 인식은 그렇다”고 공격했다.

박 의원은 “사당화로 좌지우지했다면 반대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겠는가. 그건 하나의 예라던 예”라고 반격했다.

자신을 표현하는 단어를 꼽으라는 질문에 박 전 위원장은 신뢰를, 김 의원은 촛불과 도전정신, 안상수 전 원외장은 외유내강을, 김 지사는 뜨거운 애국심과 청렴을, 임 전 실장은 얼큰이(얼굴이 크다)를 각각 꼽았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 대선 경선 ‘영남패권주의’ 논란

손학규·박준영·김영환·정세균 “영남 대통령, 현실화 되지 않을 것”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경선전이 본격화하면서 ‘영남패권주의’가 경선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 쟁점은 후보들이 각종 인터넷과 토론회에서 개별적으로 밝히면서 잠깐 부각되다가 23일 후보 간 TV토론회에서 공박의 소재가 되면서 최대 이슈로 떠올랐다.

긍정적 측면에서 ‘영남후보론’으로도 불리는 이 쟁점은 8명의 후보 중 절반인 4명이 부산·경남(PK) 출신이어서 나타난 쟁점이다. 더욱이 현재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이 부산 출신이고, 여권의 유력한 대선후보인 새누리당 박근혜 전 비대위원장은 대구·경북 출신이다. 현재 유력한 후보들 대부분이 영남 출신인데 반해 호남을 주요 지지기반으로 갖고 있는 민주당이 그 위상을 잃어가고 있는데 따른 반발이 쟁점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첫 포문은 수도권 출신인 손학규 후보가 열었다. 손 후보는 지난 3일

민평련 대선주자 초청 간담회에서 “아권에서 ‘2002년 영남효과’(노무현 전 대통령이 16대 대선에서 영남권 30% 득표를 발판으로 대선에서 승리한 일)를 다시 기대하고 있지만, 이번에는 현실화되지 않을 것”이라며 “이번에는 중간층과 종산층에서 추가로 얻을 수 있는 표의 숫자가 (지역으로 얻을 수 있는 표보다) 훨씬 많다”고 주장했다.

유일한 광주·전남 출신인 박준영 후보는 24일 BBS라디오 ‘고성국의 아침저녁’에 출연, “정치적인 이익을 위해서 영남후보론이 필승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다분히 정치공학적”이라며 “다른 국민을 무시해서는 절대 (대선에서) 이길 수 없다”고 역설했다.

김영환 후보도 연일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 그는 지난 22일 전주 북토크에서 “부산·경남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돼야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은 토끼나 노루가 갔던 길을 또 가는 것과 같은 생각”이라고 지적한 데 이어 23일 방송토론회에서도

“해방 이후 부산·경남·경북이 11번 집권했고 이번에 하면 12번째”라며 영남패권주의를 꼬집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호남 출신의 정세균 후보도 “경선 후보 8명 중 4명이 영남 출신인데 과다 대표했다는 이야기도 있다”고 지적했으며, 영남 후보인 김두관 후보마저 “호남 지역주의는 저항적 지역주의라 정당성이 있지만 영남은 기득권을 고수하려는 패권적 지역주의”라고 주장했다.

같은 영남 후보인 김정길 후보는 “어느 지역에서 대통령 후보가 많이 나왔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됐을 때 국정을 잘 이끌지가 중요하다”며 “지역과 후보를 결부하는 기준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역시 영남 후보인 문재인 후보도 지난 6월27일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영남 후보는 안 된다든지 호남 후보는 안 된다든지 이 시기에 지역을 갖고 선을 긋는 것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민주 ‘8월 임시국회’ 딜레마

국정조사 등 위해 필요  
‘방탄국회’ 역풍 우려

민주통합당이 8월 임시국회 개최 문제를 놓고 고민에 빠졌다.

당 내부에서는 8월 국회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강하지만 자칫 ‘박지원 방탄국회’를 추진한다는 역풍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우선 민주당은 7월 국회를 개원하면서 여야 간 합의한 사항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8월 국회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민주당은 민간인사찰 국정조사를 실시키로 새누리당과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이 국조특위 위원 선임조차 끝내지 않아 7월 국회 중 처리가 어려운 상태다. 내국통 대통령 사저부지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검사법도 지난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지만 특검의 대상 등을 둘러싼 여야 간 입장차로 법안의 골격조차 마련하지 못했다.

당 핵심 관계자는 “8월 국회에서는 민주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가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권재진 법무부 장관에게 자신의 저축은행 비리 사건 수사 관련 기사들을 펼쳐보이며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화와 정부 결산안까지 처리해야 한다”면서 “8월 민생국회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방탄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줄 수 있다는 우려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박지원 원내대표가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하고 있어 체포영장이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될 가능성

이 크다. 만일 8월 국회가 열린다면 박 원내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여야 간 쟁점으로 등장할 수 있다. 체포동의안이 처리되면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제1야당의 원내사령탑이 구급되는 상황을 맞고, 부결될 경우에는 ‘방탄국회’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고민스러운 것이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 “대법관 임명동의안 1일 직권상정 검토”

강창희 국회의장

강창희 국회의장은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에 대한 여야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직권상정 시점으로 내달 1일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국회의장은 (직권상정 시점) 8월 1일이라고 얘기했으니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며 “8월 1일에 할 수 있는 것을 왜 지금은 하지 못하느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이와 관련, 민주통합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24일 김병화 후보자 등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와 관련,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여당은 이날 안에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기 위해 소속 의원들에게 해외 출장 자제령을 내렸다. 여야가 합의한 이번 임시국회 일정에 따르면 다음 본회의는 다음달 1일 잡혔으나, 그 이전에도 본회의를 개최해 임명동의안을 처리하겠다는 것이다. /이종형기자 golee@kwangju.co.kr

## 민주 대선 예비경선 오늘 광주서 첫 합동연설회

제18대 대통령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통합당의 예비경선 합동연설회가 25일 오후 5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열린다.

전국의 4개 권역을 순회하며 열리는 이번 후보자 합동연설회는 25일 광주를 시작으로 ▲26일 부산 ▲27일 대전 ▲28일 서울 순으로 4차례 실시된다. 특히 이번 광주 합동연설회는 민주당의 전통적 지지기반인 호남표심의 향배를 가늠하는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더욱 주목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경선에는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영환·조경태 의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8명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날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밤 10시 KBC광주방송에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방송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목표되고 있다.

민주당 예비경선에는 문재인·손학규·정세균 상임고문과 김두관 전 경남지사, 박준영 전남지사, 김영환·조경태 의원, 김정길 전 행정자치부 장관 등 총 8명이 출사표를 던졌다.

한편, 8명의 대선 경선 후보들은 이날 합동연설회가 끝난 뒤 밤 10시 KBC광주방송에서 정책과 자질을 검증하는 방송 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최권익기자 cki@kwangju.co.kr

옥상·외벽·내벽·주택 전문 방수

기술 필요없이 누구나 직접 방수를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쉽게 붓이나 롤러로 직접 칠해주세요”

- 옥상 지붕이 새는 건물
- 외벽, 내벽, 지하실, 화장실
- 바닥이 오래되어 모래가 일어나는 옥상 및 바닥
- 장마철 누수 및 습기찬 곳
- 옥상방수 하자에 지치신 분
- 낡은 옥상을 새 옥상으로 만들어 줍니다.

— 가격이 저렴하여, 시공면을 깨끗이 물 청소하시고 로리로 직접 칠해 주세요.  
— 고침투성, 무공해 무독성 제품으로 건물의 수명을 연장시켜 줍니다.  
— 물기나 습기가 있는 곳도 공사할 수 있습니다.  
— 한번 시공으로 반영구적입니다.

역사와 전통의 미화표를 꼭 확인하세요...

품질경영시스템인증 9001, 2001인증

ENG. 이앤지 방수, 바닥재 전문생산업체  
**이앤지미화방수** | 주

☎ 062-367-7755  
광주광역시 서구 농성동 660-29

**경매투자** | 자본물건등 특수물건 | NPL 부실채권

- 경매 배우면서 수익내실분!
- 특수물건과 NPL 부실채권만 취급
- 주1회 2시간 3개월 스테디
- 교육비 / 임차활동비용 회비있음
- 수료중 단독 / 공동투자 가능
- 수료후 수료증 / 평생 무료상담 혜택

**무료 공개 강의**

제목 : 특수물건 / NPL물건 투자등등  
일시 : 2012년 8월8일(수) PM 8시  
인원 : 선착순 10명(상당후 결정)  
기타 : 교재무료제공

|주| 오천경매 투자 연구소  
OC & A Investment Institute

H·P 010 3605 5000 TEL 062 525 5000  
광주광역시 동구 수기동 23-2번지  
E-mail : csg5000@hanmai.net

**부실채권**

친절히 상담해 드립니다.

- 각종공증문서 ■ 대여금
- 법원판결문 ■ 운송료
- 각종채권 ■ 구상금
- 물품대금 ■ 공사대금

· 채무자 전국 재산조사 가능  
· 채무자 신용조사  
· 법인재산조사, 신용조사  
· 법원 재판중인 사건 확인

의뢰시 수수료없음 (회수금에 대한 후불제도)  
필요에 따라 법비용은 채권자 부담

“타 신용정보사와 비교 탁월한 회수실적”  
“전국 지점으로 전국 소재 파악”  
“수시로 의뢰인에게 상황보고”

**미래신용정보(주)**  
전문상담 010-8617-7899